

## 아베노믹스의 과제와 전망

-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
- 소위 ‘잃어버린 20년’ 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로 만성화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아직 불투명함

### □ 아베노믹스의 배경 및 개요

-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 및 경제활동이 침체가 계속되어 ‘잃어버린 20년’ 에 빠지게 됨
  - 과감하게 산업재편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, 기존 산업의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제화에 대한 대응력이 쇠퇴
  - 종신고용제 붕괴에 따른 임금 감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침체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
- 만성화된 장기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
  - 10년 이상 디플레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본 국내에서 비관적인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만연,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

-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내각관방참여로서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혼다 에쓰로(本田悦朗)<sup>1)</sup>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가 제안한 ‘3개의 화살’로 요약할 수 있음

① 금융정책 :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의 금융정책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일본은행에게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요청

- 아베 정부는 일본은행이 추진해 온 기존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물가안정목표제(inflation targeting: 2%)의 도입을 주장한 쿠로다 하루히코(黒田東彦)를 신임 총재로 임명
- 4월 첫째 주에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하여 금융완화정책<sup>2)</sup>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
-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미국달러에 대한 엔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② 재정정책(공공투자) :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기 자극 정책

- '13년도 공공투자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13조 1,000억 엔을 신청, 경기를 자극하여 일본경제에 플러스 영향을 기대
- 10년간 200조 엔을 투자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‘국토강인화계획’을 추진

③ 성장전략 : 일본재생전략본부, 산업경쟁력회의 등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6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

- 전략 시장의 개척, 규제완화 등으로 일본기업의 성장을 촉진

1) 전 재무대신관방 정책평가심의관으로 아베 내각의 브레인. 또 다른 한 명은 내각관방참여 국제금융담당으로 하마다 코이치(浜田宏一) 예일대학 명예교수가 있음.

2) 쿠로다 총재는 디플레이션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주장.

- 아베노믹스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, 미국을 위시한 구미의 경제학자, 언론기관, 금융회사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
- 구조개혁으로 인한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본 증시의 주가가 급등

## □ 아베노믹스의 문제점

-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2%의 목표를 설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
- 현재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일시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-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 비용 증가, 국채의 지불이자 증가 등을 통해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
-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, 일반기업, 가계는 과거 20년 동안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하므로 주택융자의 금리 상승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
-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,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나, 재정 악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황
- '13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어 재정 악화가 우려
- 재정 악화는 일본의 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재정재건을 동시에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

## □ 향후 전망

- 지금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일본 국내의 주가 상승으로 자산효과<sup>3)</sup>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 - '13년 초부터 귀금속이나 가구 등 고액 상품의 매출이 증가
  - 자동차 등 주요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수출도 회복되기 시작
- 그러나 엔저로 인한 에너지, 전기요금, 식품 가격 등의 상승으로 주가의 상승에 비해 기업 실적은 3.4% 증가에 그침
  - 자동차 산업의 실적 전망은 상향 수정되고 있지만, 일부 전기 산업은 실적 부진으로 전망을 하향 수정하는 기업도 출현
  -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기대감만이 선행하는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
  - '13년도 결산('13.4월~'14.3월) 때까지 지금과 같은 엔低·주가高 상황이 지속되면, 향후 일본경제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
- 미국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계 경기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, 환율시장에서도 변동이 예상
  - 셰일가스 혁명과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미국경제가 부활하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, 미일 간의 금리 격차를 이용한 투자자들에 의한 달러 매입·엔 매도(엔케리트레이드)가 증가할 전망
  - 달러대비 엔화 가치는 리먼 사태 직후 수준인 90엔 대 중반까지 떨어지고, 아시아 부유층들이 일본의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대두

3) 주식, 부동산, 채권 등 자산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어나는 효과.

-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경기 자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
- 일본경제의 회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재편을 규제완화, 노동시장 개혁 등 포함한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요구되고, 이를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황

## □ 아베 정권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

- 1990년대 이후 구조개혁을 미루어 온 일본은 TPP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함에 따라 TPP 교섭 참가를 선언
-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TPP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입장
- 일본의 자원부족을 고려하면 해외와의 접점이 증가하는 TPP 협상 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- 다만, 조기의 과감한 개방은 일본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교섭 국가에게 이를 강하게 어필하는 등 아베 내각의 협상력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음
- 한중일 3개국은 서로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
- 일본으로서는 한중일 FTA가 실리적으로 TPP보다 큰 경제효과가 기대되므로 한중일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

## <참고자료>

- 眞壁 昭夫(마카베 아키오) “アベノミクスと日本經濟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” 한일미래경제협력세미나 발표자료 (2013.3.25.)
- 伊藤 元重(이토 모토시게) “民主党政権下の「失われた3年」を克服し日本はデフレマインドから脱却できるか?” 다이아몬드 온라인(2013.2.27.)